

# '크리스마스엔 산타 만나러'

### 22~24일 임실산타축제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축제인 '2018 임실산타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아이들과 어디로 놀러갈까 고민 중이라면, 산타축제에 와서 산타도 만나보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동심의 세계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축제는 '18명의 산타를 찾아라'와 '산타경연대회! 내가산타야!' 등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산타플래시몹 퍼레이드, 치즈컬링, 산타양말 소원적기, 산타스탬프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펼쳐지는 축제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몰린 참가회망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돼 더욱 뜨거운 본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기간동안 총 1,000명에게 50%



임실군은 임실산타축제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로 임실치즈테마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팀(063-643-230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산타축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 조성,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및 먹거리

부스 확충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크리스마스엔 임실산타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드리겠다"며 "색다른 크리스마스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임실산타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한 겨울의 낭만과 행복을 맘껏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논의

순창군이 쇠락된 도시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공사사업 선정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관련 최근 군은 부시장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순창읍 도시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방향과 비전, 각종계획, 도시재생 구상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제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에 편성하는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를 마쳤다. 신옥수 농촌계 발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순창군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줄 대형 프로젝트를 중 하나"면서 "사업신청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간 순창읍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지원을 활용한 여건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생 배출

순창군이 19일 전문농업인반과 2030 청년농업인반 등 농촌혁신대학 2개 과정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생 31명은 지난 3월에 입학해 유명강사를 초빙한 33개 강좌의 집합교육과 국내 선진농업 현장견학 5개 강좌 등 총 38강좌를 수강했다. 강좌는 농산물 마케팅과 친환경농업, 농가 경영개선 등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과 리더십 등 농업의 다차원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11기 졸업생인 태원애(58, 순창읍)씨



순창군은 농촌혁신대학 2개 과정 졸업식을 가졌다.

는 "농업환경을 파악하고 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혁신대학에서 배

운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자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실시

남원시는 지난 18일 컨스턴트 리포트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복 동행' 워크숍을 실시했다.

2016년에 구성되어 민관협력 활성화

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연계를 통해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협의체 관련 교육과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회원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쉽게 책 빌려 볼 수 있어요'

### 임실군립도서관, 회원증 전국 참여도서관 이용가능

임실군은 20일부터 회원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166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Library one service)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이음 서비스는 지역별 주소지 제한으로 인한 회원가입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회원증 공유 전국 네트워크 사업이다. 도서관을 방문해 본인인증을 확인되면 회원은 1회당 한 장소에서 5권, 다른 장소를 포함해 최대 20권까지 빌릴 수 있다. 임실군은 현재 관내 작은도서관 5개소(다독다독, 무지개빛, 지

사랑, 아낌없이주는나무, 필봉)에서 책이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임실군과 다른 지역의 경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책이음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과 이용방법은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http://book.n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실군 도서관 이용안내에는 군립도서관(063-640-2931)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 아리

### 남원시, 어린이집 경계선

###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 관내 92개소(유치원 64개소, 어린이집 28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했으며,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실내공간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아동의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금연상담 및 교육,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6개월 금연 성공 시 금연 성공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순례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 운영실적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표창(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의 이번 성적은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운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5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2008.4.1.)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시민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남원시의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 제안사업에서는 176건(115억원)이 신청되어 분과위원회 현장 활동을 거쳐 시민공모사업 138건(50억원), 일반참여예산사업 403건(849억원) 등을 선정해 총 899억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9일 제2차 분회를 끝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 군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고,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임실군 살림을 확정하고,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목적성에 입각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 요구 45건, 건의 19건, 개선 18건으로 총 85건을 발굴해 집행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일부사업의 29억 2,59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 편성 등 총 4,013억 929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00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한편, 이날 분회의에서는 김왕중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폐쇄된 의료원 임원실을 재개하여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페이닥터 운영을 검토해 줄 것"과 "상시적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인력을 충원하여 군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해 줄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신대용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동료의원들과 의회 본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으며 다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